

전북현대, 두 마리 토끼 사냥 '순항'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 K리그 3연패 독주체제 구축

전북현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 3연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K리그를 선도하는 리딩클럽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의 쾌속 질주가 심상치 않다.

이미 K리그는 2위 서울과 승점이 10점차 이상 벌어져 3시즌 연속 정상등극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역시 4강에 강호로 불리는 중국팀들이 대거 탈락하고 FC서울, 알 자이시, 알 아인 등 전북에게 약한 모습만 보인 팀들이 생존해 있어 정상 등극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오프시즌 중 김신욱, 로페즈, 김보경, 이종호 등 특급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기대감을 높였던 전북은 시즌 초반 오히려 너무 많은 선수 탓에 조직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며 가까스로 승리하는 경기와 무승부를 거듭하는 경기가 많았다.

김신욱을 제외한 로페즈, 김보경, 이종호는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이며 전북의 연전연승을 이끌었다. 특히 김보경은 이재성, 정훈과 함께 완벽에 가까운 허리라인을 구축하며 리그 32연속 무패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4강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김신욱까지 멀티골을 신고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며 이적생 모두 팀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최대강점은 타 팀이 한명도 보유하지 못한 특급공격수가 5명이나 있다는 점이다. 주장 이동국, 에두, 로페즈, 김신욱, 이종호는 아시아 어느 팀을 가도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들로 최강의 감독은 이 선수들을 필요상황에 적절히 배치하며 엄청난 화력을 뽐내고 있다.

정훈, 이재성, 김보경, 한교원이 이끄는 미드필더진 역시 공수양면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어 부상이라는 약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의 폼



전북현대와 FC서울과의 경기 모습.

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다만, 전북의 불안함은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탓에 수비진이 너무 올라와 있어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이 골키퍼 권순태가 수비와 골키퍼의 사이 공간을 적절하게 커버하며 실점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득점 한 골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토너먼트

의 특성상 수비진의 집중력 유지는 전북의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재패의 중요한 갈림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그 우승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전북이 28일 홈에서 펼쳐지는 AFC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근 기자

K리그 클래식 실제 경기시간은 '58분 58초'

2016시즌 K리그 클래식의 평균 실제 경기시간(Actual Playing Time)이 지난해보다 3분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3일까지 열린 K리그 클래식 187경기, 챌린지 175경기의 APT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APT는 총 경기시간 90분 중 실제 경기가 진행된 시간을 이르는 개념으로 APT가 높음은 경기 중단이 적고 진행이 빠름을 의미한다.

1부리그 클래식의 경우 전년대비 2분19초 증가한 58분 58초의 APT를 보였다. 2부리그 챌린지는 전년대비 2분 59초가 늘어난 58분 52초를 기록했다.

지난 18일에 열린 2경기는 APT가 70분에 육박하는 등 경기 지연시간이 최소화된 초대형 경기가 속출하고 있다.

FC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전은 70분 13초,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전은 68분 3초로 나타났다.

추가시간 득점 비율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의 총 546골 중 5%에 해당하는 26골만이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데 비해 올 시즌은 현재까지 45골(9%)이나 비슷한 시간에 터졌다.

연맹은 올 시즌부터 박진감 넘치는 공격축구를 펼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했다.

또한 골키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골키퍼 6초 톨을 엄격히 시행하고 코너킥과 스로인시 고의적 경기지연 금지, 파울 선언 이후 고의적 볼 터치 금지 등을 통해 APT를 늘렸다.

/김민근 기자



리우패럴림픽 육상스타 전민재 선수 금의환향

2016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 육상 200m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빛나는 미소천사 전민재 선수가 지난 23일 고향 진안으로 금의환향했다.

전민재 선수는 리우패럴림픽을 마치고 전국 장애인체전을 대비한 훈련을 앞두고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인 진안군 진안읍 원반월마을로 돌아왔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환영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전민재 선수의 가족들은 음식을 준비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저력과 감동을 전 세계에 보여준 전민재 선수를 축하하며 작은 환영행사를 열었다.

어린시절 원인모를 뇌염을 앓은 후 뇌성마비로 인해 장애를 앓게 된 전민재 선수는 파나는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육상의 대들보로 성장,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한편 전민재 선수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2016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전북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며 13년 연속 육상 3관왕이 유력시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중일 스포츠장관, '평창 선언문' 발표... "올림픽 성공개최 협력"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앞두고 지난 22~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중·일 3국은 각각 평창(2018년 동계올림픽)과 일본 도쿄(2020년 하계올림픽), 중국 베이징(2022년 동계올림픽) 등 동·하계 올림픽 개최를 '탈레이 올림픽'처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상호 교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3국 스포츠장관 회의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류평(劉平) 중국 국가체육총국 총국장과 마쓰노 히로카즈(松野 博一) 일본 문화과학성 대신이 참석했다.

회의는 22일 한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중국과 일본이 양자회담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회담으로 진행됐다.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3일에는 한·중·일 3국 스포츠 장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모두 모여 동·하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반도평, 생활체육 협력 등을 논의했다.

3국 회담이 끝난 후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스포츠 교류와 협력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는 지름길이라는 점

에 인식을 같이 하고 3국의 관계구축을 위한 '평창 선언'에 서명했다.

'평창 선언'은 ▲스포츠를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교류협력 ▲스포츠를 통한 사회발전 ▲스포츠 산업 발전 ▲도량량지 협력 등의 의제를 담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올림픽조직위원회 간의 전문가 교류와 대회 운영 노하우 공유 등 개최를 위한 준비와 3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 등을 함께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세계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국이 과거의 긴장을 딛고 공동번영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동아시아가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가 3국에서 개최될 올림픽의 성공 뿐 아니라 3국의 공동번영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참석했다. 바흐 위원장은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직접 평창을 찾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제2회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는 2018년 일본에서 개최된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후원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